

## 오피니언

## 사설

## 사면초가에도 내 할 짓은 하겠다는 현대중노조

현대중공업노조가 26일 기어코 3시간 부분파업을 강행했다. 노조는 파업직후 울산본사 노조사무실 앞에서 조합원 집회를 열고 회사를 압박했다. 노조는 지난해 입단협교섭 과정에서 20년 만에 파업한데 이어 올해 2년 연속 파업을 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현재 미증유(未曾有)의 위기에 몰려 있다. 회사 내부로는 지난해 3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는 등 사상최악의 경영위기다. 올해 다소 적자 규모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적자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조선수주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최근 세계경제를 떠받치고 있다는 중국경제가 끝을 모르는 추락을 하고 있다. 증시가 폭락하면서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3,000까지 무너졌다. 그러면서 중국이 세계 경기회복의 새로운 끝짓거리로 부상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이를 돌파하기 위해 환율을 인하하고 기준금리도 대폭 낮췄다. 이는 곧 국내 조선사와 경쟁하고 있는 중국 조선업체에 호재가 아닐 수 없다. 국내 조선업체는 이처럼 안팎으로 물리고 있다. 20년 넘게 지속됐던 조선업체의 호시절이 다 지나간 것도 모자라, 존립의 위협에 직면한 셈이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은 올해 임금협상이 성에

차지 않는다고 파업이라는 강수를 들고 나왔다.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이 된 만큼 파업은 언제라도 할 수 있다.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입장이라 노조가 우선권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 입협에서 노사는 총 17차례 만났다. 이 과정에서 노조가 요구하는 수준에 회사가 화답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더욱이 회사는 하계휴가 직후 '임금동결안'까지 들고 나왔다. 노조가 요구한 올해 임금인상안 12만7,560원을 단 한 푼도 올려주지 못하겠다는 주장이다. 노조와 조합원들로서는 억장이 무너질 만하다. 그렇다고 전후사정을 돌아보지 않고 파업이란 초강수부터 두는 건 설득력이 없다. 회사가 오죽하면 임금동결안을 제시했는가에 대해 역지사지(易地思之)하면 이해 못할 것도 없다고 본다. 지난해 사상최악 적자에 이어 올해도 적자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임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특히 조선업계의 미래 판도가 더욱 불확실하다는 측면에서 회사의 선택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작금의 위기가 있기까지 이를 미리 대비하지 못했던 경영진의 책임도 크다. 그러나 지금은 노사가 위기의 수렁에서 회사를 건져내는 것이 먼저다.

## 일·학습 병행제, 울산기업 호응도 높다지만

청년일자리의 수급(需給) 불균형이 우리 사회의 고질병으로 지적돼 온지 꽤 오래다. 청년실업이 늘어나지만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는 이유가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 학력 중시 풍조, 기능·기술을 확대하는 사회 풍토 등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다. 이같은 취업 및 구인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의 하나로 떠오른 게 '일·학습 병행제'다. 알다시피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정부는 기업이 체계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독일·스위스 등의 '도제식 훈련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한 것인데 기업이 인력을 채용한 후 일과 함께 현장실무와 이론 등 직무교육을 병행해 실질적으로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직접 육성·확보하고 정부에서는 선정된 기업에게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기반으로 한 전문기관 컨설팅 및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도와준다. 이와 함께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비용과 숙식비, 해당 학습근로자에 대한 수당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인건비 부담 경감을 해주게 된다.

이는 한마디로 스펙이나 학력보다는 능력이 우대받는 능력 중심 사회를 구현하는데 있어 울산지역 기업체들의 관심이 높다는 건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다.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지난 5월 일·학습병행제 전담팀을 설치한 이후 4개월 만에 올해 목표치 50개의 절반이 넘는 33개 업체가 일학습병행제 참여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울산지역 기업체 수가 전국대비 2.1%에 불과한데도 타 지역 참여율(평균 20.4%)에 비해 1.6배에 달하는 수치를 보였으니 그럴만도 하다. 이런 데는 종업원 2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제한되던 참여조건이 지난 6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완화된 게 크게 기여한 듯하다. 또한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에게 병역특례지정업체 우선 선정권 및 조달청 입찰 물품구매 적격심사사가 산점 부여의 혜택까지 주어지는 점도 기업들의 이목을 끄는데 한몫한 게 틀림없다.

하지만 걱정스런 대목도 적지 않다. 일부에서는 현재의 청년인턴제와 큰 차이가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정부지원이나 혜택에만 관심이 있지 실질적인 훈련을 위한 질적 관리가 소홀하다는 불평도 있다. 특히 교육의 기반이 되는 NCS의 운영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는 점도 불만이다. 지역 중소기업의 중요성과 비전 등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골자다. NCS가 단순한 업무능력 기준이 아닌 인성과 직무교육을 더욱 균형있게 반영해야 하는 이유다.

## 현장소리



신호현

시인·서울배화여중 교사

자유학기제는 2013년 5월 28일 자유학기제 운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2013년 2학기와 2014년 1학기에 전국 40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해 그 성과를 분석했다. 올해는 60%, 내년에는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실시하게 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자유학기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점을 보다 나은 교육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학생들의 교육 흥미도와 진로탐색 관련 집중도를 높이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정규교사의 중압감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발견할 수 있도록 전통 강의식 수업보다는 토론 및 실습 수업으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수업 형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중학교 1학년 2학기는 자유학기제로 운영해 학생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에서 저마다의 꿈과 끼를 발견하도록 하는 기간을 주자는 취지이다. 전국적으로 시범으로 운영된 학교 현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다.

자유학기제 운영의 기본 방향은 첫째,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학년 1학기는 준비기간으로 중간고사 대신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학기에는 중간·기말고사를 폐지하고 수업활동 상황을 서술식으로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이다. 둘째, 교수학습 방법의 혁신으로 기존의 전통 강의식 수업에서 프로젝트 학습, 문제기반 학습, 모둠별 협동학습 등 학생들이 수업을 기획하고 활동함으로써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으로 전환해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와 창의성을 길러주자는 것이다. 셋째, 진로교육의 강화로 집중적인 진로 수업 및 진로체험을 탐색하여 진로를 구체화하고 고등학교 진학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자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학기제 운영이 성공하려면 그동안 시범실시를 통해 드러난 다음의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자유학기제의 시기이다. 현재 입시에 성적이 반영되지 않는 1학년 2학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2학년 2학기로 옮겨서 운영해야

한다. 시기적으로 1학년 2학기는 아직 초등학교 수업에서 중학교 수업으로의 적응이 안 된 상황에서 시험을 폐지하니 중학교 수업에 부담을 느끼지도 못하고 흥미 위주의 활동 수업에 건성으로 참여해 수업 집중도나 교과 성적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또한 중학교 학생들의 사춘기가 대개 1학년 2학기에 시작해 2학년 1학기에 안정이 되는데 사춘기를 겪은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는 시기가 2학년 2학기이다. 입시성적 반영은 1-2, 2-1, 3-1, 3-2학기 성적을 반영하면 된다. 둘째, 학력 저하의 우려이다.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프로젝트 학습이나 협동학습이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업준비와 평가에 대한 부담과 정해진 시간에 교육과정 내용을 다 가르치지 못한다는 부담이 크게 기인한다. 사회에서 인재 선발에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학력이 저하되면 학부모들과 선생님들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학기제를 실시해 세계적인 학력평가에서 다소 성적이 떨어지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셋째,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한 사회참여이다. 학교 내 시설과 인적 자원의 한계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다. 학생들이 외부에 나가 직업체험을 하거나 학교 내에서 자율과정을 운영할 때에 기업이나 사회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줘야 한다. 더구나 동농 간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이 부족한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데 있어 프로그램이 모두 무료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외부 감사비도 지출해야 하기

에 자유학기제 운영비도 지원이 돼야 마땅하다.

우리나라는 경제활동 10위권으로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입시위주의 교육의 틀을 벗고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개인의 꿈과 끼를 발견할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변화이다. 방학 중임에도 선생님들은 편히 쉬지 않고 자유학기제가 학교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 연구를 한다든가 각종 연수에 심취하고 있다. 미처 준비가 부족해 좋은 취지로 시작한 자유학기제가 제대로 정착하기 전에 정권이 바뀔다고 제 빛을 보기도 전에 사라지는 우를 범할까 걱정이 된다. 자유학기제 홍보도 적극 이뤄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언론에서 홍보를 해야 하고, 올해 60% 시범학교로 운영되는 학교의 결과를 철저히 분석해 자유학기제 운영 모형으로 제시한 기본 안에서 얼마나 벗어나 운영되고 있는 지도 검토해 내년 중학생들에게 전면 시행될 때 시정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U울산매일

한국신문협회·한국기자협회 회원사  
CBS노컷·연합뉴스 제휴

〈해와 자매신문〉長春日報 (중국)

부수공사기구  
한국ABC가입

##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4 템포빌딩 9층·10층 대표전화 243-1001

구독신청 : 243-5001 광고접수 : 243-4001 FAX : 271-8790 총무국 : 271-8702 FAX : 271-8791~2 주필 271-8704  
편집국장 271-8703 사회부 271-8706 경제부 271-8707 정치문화부 271-8794 서울지사: 021362-3516 FAX : 02-362-5553 부산지사: 051628-5131

사장·발행·편집·인쇄인 이연희 주필 김병길 편집국장 조재훈

등록일자 1992.1.28 등록번호 가-00120호(日刊)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구독료: 월정 9,000원 / 1부 500원)

지 신정1 261-9032 신정2 258-8814 신정3 261-9032 신정4 265-0171 신정5 261-9032 삼산 271-2931 삼일 260-2262 무거 224-7802 삼호 245-3742 아음1 275-6060 아음2 269-4743 수암 273-6996 달동 272-4469 공단 265-3528 옥동 274-1241 옥정 258-8814 선암 265-1220 성남 211-4235  
국 우정 246-1920 태화 211-3296 반구1 294-3304 반구2 291-1844 복산 291-1844 옥교 294-7750 병영 294-7999 동병영 294-7999 성안 244-6110  
다문 247-5535 양정 287-8682 효문 287-0911 호계 295-3903 강동 297-9070 남곡 233-1920 동울산 251-3878 대송 251-6275  
방어진 233-2293 범서 248-8971 언양 254-3800 온산 238-1937 온양 237-7865 덕하 265-1220 서생 237-7865 옹촌 055-386-3334

## 영월·정선 1박 2일 기차여행

[출발확정] 8/24, 8/29

지역	교통편	시간	여행일정	식사
울산·영월·정선	무궁화 연계차량	08:13 11:51 12:10	남창역 출발(무궁화 1622) → 태화강역(08:32) → 호계역(08:42) 영주역 도착 후 담담차 미팅 및 식당 이동 식당 출발 → 단양·도담삼봉서로으로 이동 후 관광 단양·도담삼봉 출발 → 정령포로 이동 후 자유 관광 - 조선 제1대 임금인 단종이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유배 되었던 곳. 청령포 출발 → 정령(단종묘) 도착 후 관광(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정릉 출발 → 정선 속소 도착 / 속소 배정 후 석식	중:O 석:O
정선	연계차량	전 일	속소 조식 후 오장폭포로 이동 오장폭포 이동 및 관광 - 노수산 옆 오장산에서 쏟아져 내리는 폭포. 오장폭포 출발 → 구절리 레일바이크 정거장 이동 정선 레일바이크 탑승(구절리 출발 → 아우라지 도착) - 모자, 물, 수건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우라지 출발 → 스카이워크로 이동 스카이워크 자유 관광 - 동강한반도 지형~ - 국내 최초 3D전망대이며 해발 583m, 절벽 끝 11m U자형 구조물. (※내부관람 시 입장료 성인 5,000원 별도) 아라리촌(민속촌) 이동 및 관광 정선정터 이동(강원도 3대 정터) 후 중식 및 정선시장 둘러보기! 정선정터 출발 → 영주역 도착	조:O 중:O
영주·울산	무궁화	17:02 20:27	영주역 출발(무궁화 1681) → 호계역(19:56) → 태화강역(20:07) → 남창역 도착	

1인 여행경비 (4인실 기준)	월~목, 일요일	금~토, 공휴일
대인: 186,400원 ~ 소인: 171,500원 ~	대인: 188,900원 ~ 소인: 174,000원 ~	

\* 출발 날짜에 따라 요금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요금은 유선상으로 문의주세요.

**포함사항** | 무궁화 왕복열차비, 연계 차량비, 숙박(1박), 식사(4식), 입장료(장릉, 정선레일바이크)  
**불포함사항** | 식사, 개인경비 ▶3인실 1인 5,000원 추가 ▶2인실 1인 10,000원 추가  
**비고** \* 최소 인원(8명) 미달 시 행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출발 2일전까지 모객이 되지 않아 취소 시에는 쌍방 원칙에 따라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기 일정 및 요금은 교통편 및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울산출발)대마도 1박 2일 여행

| 여행기간 | 2015년 9월 13일(일) ~ 9월 14일(월)

| 여행경비 | 1인 185,000원

날짜	도시	교통편	시간	세부일정	식사
제1일	울산	전용차량	06:10	동구 현대백화점 → 동천 체육관(06:30) → 태화교 하부(06:40) → 신북로타리(06:50) → 부산 국제여객터미널 집결 후 속소 부산 출발 / 대마도 항발 하타카츠 항 도착 및 입국 수속 부산이 멀리서 바라보이는 <b>한국전망대</b> 금관가야의 시조 김수로왕 후손을 모신 <b>와타즈미신사</b> 아소만을 360도로 둘러볼 수 있는 <b>에보시타케 전망대</b> 두 개로 나뉜 대마도를 하나로 이은 <b>만제키바시</b> ☞ <b>해수안전육 체험(수건 개발 준비)</b> 속소 체크-인 및 자유 시간(HOTEL: 호텔급)	중:현지식 석:해물바베큐
제2일	대마도	도보	16:00 18:10 --:--	속소에서 조식 후 ▲ <b>관광 팁</b> ▲ <b>이즈하라 시내 도보 관광</b> - <b>고려문 조선통신사의 비</b> * <b>대마역사자료관은 월요일 휴관인</b> 관계로 외부만 관광 - 조선말기의 최약의 비문 <b>덕해옹주 결혼 기념비</b> - 백제 비구니가 창건한 <b>수선사와 최익현 선생 순국비</b> - <b>아에노도리 현비, 하치만궁 신사 관광</b> ▲ <b>신행 팁</b> ▲ <b>(아리아케 산행)</b> 이즈하라 시내 - 산노마루 - 니노마루 - 이치노마루 - 아리아케 정상 - 이즈하라 시내 이즈하라항으로 이동 후 출국 수속 대마도 출발 / 부산 항발 부산 국제여객터미널 도착 후 울산으로 이동 울산 도착 예정	조:호텔식 중:현지식
부울산	오션플라워 전용차량				

\*상기 일정은 교통편 및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포함사항** | 부산-대마도 왕복 선박비, 한국대마도 부두세, 유류세, 가이드, 현지행사비, 여행자보험, 울산-부산 부두 왕복수송비  
**불포함사항** | 기사 / 가이드 봉사료(20,000원), 개인경비 등  
**비고** |

① 최소 행사 인원은 10명 이상입니다.  
 ② 대마도 입국 시 여권 유효기간 지참하셔야 합니다. (유효기간 출발일로부터 6개월 이상)  
 ③ 입차 해물바베큐 식사 시 김치, 소주 등 여유 반찬 따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④ 대마도속소는 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2인실이나 3-4인실 객실로 배정이 되실수도 있습니다.  
 ⑤ 천재지변 및 기상악화로 인한 선박 결항 시 대체여행비는 고객 개인 부담입니다.  
 ⑥ 환불규정 - 출발 7일전 90%환불, 3일전 70%, 2일전 50%, 1일전/당일 환불불가 (영단 변경 불가능하며 취소로 적용됩니다.)

## 기차여행

8명이상 매일출발!!

## KORAIL 무궁화(당일)

① 영주 당일 (부석사, 소수서원 / 선비촌) 56,200원 ~  
 ② 안동 당일 (부용대, 하회마을, 월령교) 57,800원 ~

## KORAIL 무궁화(속박)

① 강원도기행 1박 (삼척/강릉/정동진) 1박 2일 189,700원 ~  
 ② 강원도기행 2박 (영월/정선) 1박 2일 179,200원 ~  
 ③ 춘천(남이섬, 소양강, 김유정문학관) 무박 2일 117,000원 ~  
 ④ 춘천(남이섬), 화천(강성마을, 카트레일카) 1박 2일 188,700원 ~  
 ⑤ 정선아리랑열차(A-TRAIN) 밀령투어 1박 2일 188,400원 ~

## KORAIL KTX (당일)

① 전주 한옥마을/김제 금사사 94,500원 ~  
 ② 담양 죽녹원/매타세과이어 길/강천산 92,100원 ~  
 ③ 안면도/간월도/꽃지해변 88,200원 ~  
 ④ 번산반도 내소사/채석강/새만금방조제 93,100원 ~

## 제주도 / 울릉도 / 홍도

① 제주도 2박3일 279,000원 ~  
 \*여름방학 기간 제주도 특가 상품도 있습니다.  
 ② 울릉도 2박3일 275,000원 ~  
 ③ 홍도, 흑산도 2박3일 205,000원 ~

\*세탁한 의류 및 요금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정확한 화석 가능여부는 유선상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투어시청점 (주)베스트여행사 052)269-1717 www.ktxtour.net

NAVER

베스트여행사